

“질투 (La Jalousie)”의 분석

- 주제와 변형으로¹⁾ -

鄭 慶 嬭 *

I.

질투(La Jalousie)라고 제목붙여진 이 소설은 A...와 프랑크와의 관계를 의심하는 A...의 남편의 시각²⁾으로 그 관계의 발전상이 전개된다. 그런데 주인공이라 볼 수 있는 남편에 대한 인적사항은 어떠한 것도 발견되지 않으며, 장면들의 정확한 시간적 추이도 불가능하다. 이는 전통적 소설의 틀에 맞지 않으며, 전통적 소설 분석방법을 거부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에 작가자신의 말대로 “문장들의 순서(celui(l'ordre) des phrases du livre)³⁾를 사건의 순서로 보고, 딱딱 끊어지는 장면과 장면들, 모순된 장면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 안에서 우리는 작곡형식인 “주제와 변형”을 빌어서 분석의 기본단위가 어떤 것이며, 또 그 단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에 나타난 순서대로 1장, 2장, ...으로 순서를 정하면, 1~5장은 1부로 A...와 프랑크가 여행을

* 人文大學 佛語佛文學科 教授

1) 로브그리에는 작곡법을 많이 사용하는 작가중 하나라고 한다.

“Vous êtes un des écrivains chez lesquels on trouve à l'exercice le plus de procédures musicales” p.105 in R.S.H.

2) 이 작품 전체의 시점(focalisation)이 남편의 시각위에서 행해지고 있다. 독자는 A...와 프랑크 단둘만의 대화를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의 따옴표속의 말(discours rapporté)도 어디까지나 남편의 서술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discours transposé”가 될 뿐이다. 따라서 독자는 남편이 전하는 그들의 언행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3) A. Robbe-Grillet : “Temps et Description dans le récit d'aujourd'hui” in Pour un nouveau roman. p.167.

떠나기 전의 관계이며, 6~7장은 2부로 그들의 여행중의 관계, 8~9장은 3부로 여행후의 관계로 내용(histoire)을 구분할 수 있겠다.

- 1부 1장 Maintenant l'ombre du pilier
- 2장 Maintenant l'ombre du pilier sud-ouset
- 3장 Le long de la chevelure défaite
- 4장 Tout au fond de la vallée
- 5장 Maintenant, c'est la voix du second chauffeur
- 2부 6장 Maintenant la maison est vide
- 7장 Toute la maison est vide
- 3부 8장 Entre la peinture grise qui subsiste
- 9장 Maintenant l'ombre du pilier

각 장은 상황중심으로 단락이 나뉠 수 있으며, 단락은 몇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주제 일부분의 생략, 축약, 확대, 참가 즉 주제의 변형으로서 단락에 변화가 오며, 결국은 상황도 변화시켜 이야기가 발전되는 구조이다.

1부는 A...와 프랑크의 의심가는 관계에 심증을 굳히는 상황들의 연속이며, 2부는 그들의 관계를 불륜의 관계로, 3부 8장은, 여행후에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그들의 관계를, 9장은 이 발전된 모든 관계가 상상에 의한 것이었음을 시사함으로 끝맺고 있다.

표제형식도 우연이 아닌듯, 긴 1부와 짧은 2부, 3부를 묶어 두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이의 근거는 2부 끝부분과 3부의 첫부분이 똑같은 내용을 되풀이 하는데에도 있다. 쉽없이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2, 3 악장의 연주를 연상케 한다. 1부 1장과 5장이 Maintenant으로 시작된 것같이 나머지 부분도 첫장(2부 6장)과 끝장(3부 9장)이 Maintenant으로 시작된다. 이러한 형식은 작곡의 기초형식인 론도(Rondo) 형식 A + C + A'(coda)에 해당되는 형식이라 할 수 있겠다.

II - 1

1장은 크게 도입부(pp9-15)와 주제부(pp15-32)로 나눌 수 있겠다. 도입부는 첫 문구, Maintenant l'ombre du pilier divise en deux parties égales l'angle correspondant de la terrasse을 시작으로 집주

위 풍경을 남편의 시선으로 훑어 나가는 부분이다: 이른 어후 테라스 남서쪽기둥그림자-방에 들어온 A-테라스난간-맞은쪽 바나나밭-길-헛간-정원-집쪽 바나나밭-편지찾고, 읽고, 쓰고 있는, 방안의 A...의 순서이다.

주제부는 도입부의 첫 문구를 반복하나 약간 변형되어 있다. 그림자가 “나누다(divise)” 대신에 “늘어진다(s’allonge)”로 되어 늦은 오후를 뜻하게 된다. 이 부는 다시 세단락으로 대분할 수 있다: 1) 저녁식사직전에 마시는 아페리티프(L’apéritif) 2) 저녁식사 3) 테라스에서의 커피이다. 이 세 사항의 시작과 끝은 같은 단어의 반복으로 명시된다.

아페리티프단락시작은 “Elle semble écouter le bruit, qui monte de toutes parts, des milliers de criquets peuplant le bar-fond.(p.17), 끝은 “...il y a seulement le bruit des criquets et le noir sans étoiles de la nuit”(p.20)로 볼 수 있다.

저녁식은 “Le boy fait son entrée par la porte ouverte de l’office, tenant à deux mains la soupière pleine de potage”(p.22)와 “Le boy fait son entrée pour ôter les assiettes”(p.27)로, 커피시간은 “On n’entend, ça와 là, que le cri menu de quelque carnassier nocturne.”(p.27)와 “Le cri menu d’un carnassier nocturne, aigu et bref, retentit de nouveau, vers le fond de la vallée, à une distance imprécisable”(p.30)로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설정하에 여러가지 주제로 아내A...와 이웃 프랑크(Franck)와의 관계를 암시한다.

- 1-1) 아페리티프: A는 해질때까지 독서하고 쉬고 있다. 부인 동반없이 프랑크만이 참석한다.
- ㄱ) 램프: 모기를 모이게 한다고 A...는 램프를 가져 오지 못하게 한다.
 - ㄴ) 음료수 따르는 태도: 어두움속에서 잔에 잘 따르려고 A는 프랑크와 이마를 마주 댈 정도로 가까이 있다.
 - ㄷ) 안락의자: A...는 프랑크와 나란히 앉고, 남편은 A...를 보려면 몸을 뒤로 젖혀야 하는 위치에, A...의견에 따라 의자배열을 하였다.
 - ㄹ) A...의 친절: 프랑크가 들려주는 사소한 일상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고 용기도 돌아준다.
- 1-2) 저녁식사:
- ㄱ) 옷: 프랑크와 그의 아내(Christiane)의 언쟁의 요인이었던 몸에 붙는 옷을 A...는 입고 있고 프랑크는 좋은 천으로 된 흰 와이샤스를 목부분은 턱채 입고 있다.
 - ㄴ) 식사태도: 프랑크는 힘이 넘치게 먹는 반면 A...는 표시 안나게 먹는다.
 - ㄷ) 원주민운전사: 남편의 불신용에 반하여, A...와 프랑크는 신용한다는 의견이다.
 - ㄹ) 소설: 아프리카가 배경인 소설을 프랑크에게서 빌려 A...가 읽고 있으며, 두 사람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두 사람만의 미소를 교환한다.

1-3) 커피 : 아주 어두운 가운데 테라스의 의자에 A...와 프랑크가 앉아있다.

ㄱ) 춤곡 : A...는 흥얼거리고 프랑크가 알고 있다고 남편은 추정한다. 8-4)-ㄱ)에서 상황설명이 되어진다.

ㄴ) 손위치 : 팔걸이에 나란히 놓인 두 사람의 손의 거리가 주위가 캄캄한가운데 약 10cm밖에 안 떨어져있다.

ㄷ) 이별 : 프랑크의 떠남을 A...는 지연시키고, 프랑크는 가장 정당할 이유, 혼자 있을 아내와 애를 핑계로 대지 않는다.

A...와 프랑크의 직선적인 호감표현없어도, 남편의 날카로운 시선과 분석으로, 아페리티프에선 프랑크곁에 있고 싶다는 A...의 의중을, 저녁식사때엔 서로 매혹적인 옷차림을 하고 있을뿐더러 사사건건 의견일치를 보는 두 사람의 호응도를, 커피에서는 가까이 앉아 헤어지기 싫어하는 두 사람의 친밀도를 암시한다고 하겠다.

II - 2

2장도 1장의 구조처럼 도입부(pp32-44)와 주제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1장 첫 문구를 그대로 옮겨쓴다 : *Maintenant l'ombre du pilier... se projette sur la terre du jardin.* 이른 아침을 뜻한다. - 집 맞은쪽 바나나밭(3개, 그중 강가에 접한 것은 사다리꼴)-다리위에 쪼그리고 있는 원주민-집쪽 바나나밭-정원-지붕그림자-난간-방안에서 내다보는 A...-다리위 원주민-사다리꼴 바나나밭-트럭소리 들리는 길-아침인사하고, 책상에서 골몰해 있는 A...

나열된 주제가 말하듯 다리 위의 원주민과, 확대하여 그루 하나하나가 뚜렷하여 숫자로 표시된 맞은쪽 바나나밭의 묘사가 1장의 도입부구조의 첨가라면, 트럭소리가 들린다라든가, A...의 머리카락의 움직임 세밀히 묘사함은 내용의 첨가이다. 같은 주제와 순서이나, 1장에서의 편지쓰기 시작하는 순간의 A...의 움직이지 않는 머리카락 형태로의 끝맺음이 2장에서는 머리카락 움직임으로 발전된 변형에 이 름을 볼 수 있다.⁴⁾

4) "Les boucles noires et brillantes s'immobilisent dans l'axe du dos..."(p.15)

"...des vibrations saccadées agitent la masse noire de ses cheveux" "De légers tremblements, vite amortis, la(la chevelure) parcourt d'une épaule vers l'autre"(pp.43, 44)

주제부는 아테리티프, 점심식사, 저녁식사로 나눌 수 있다. 끝의 저녁식사는 1장의 주제부와 같은 내용의 상황이다. 도입부형식처럼 앞부분이 첨가되었다고 하겠다.

2-1) 아페리티프.

- ㄱ) A...의 머리모양 : 복잡하게 틀어진 머리
- ㄴ) 음료수 따르는 태도 : 서로 쳐다보다 철철 넘치게 따른다.
- ㄷ) 옷모양 : 프랑크는 반바지와 군복스타일의 카키색 셔츠차림.
- ㄹ) 얼음 : A...가 얼음을 안 가져와 남편이 가지러 간다.
- ㅁ) 집안배회 : 남편의 집안으로의 움직임이다. 서재로 들러 삼인분의 상이 차려져있는 식당을 통하여 다리가 많은 곤충, 밀빠뜨(mille-patte)자국을 보고 부엌(l'office)으로 간다. 그곳에서 Boy(보이)가 얼음 준비하는 것을 보고 다시 식당을 거쳐 서재로 들어가 테라스에 A...와 프랑크가 앉아 있는 것을 확인한다.

2-2) 점심식사

- ㄱ) 식당창문 : 닫혀있음-원주민 지나감. 두번째 창문에서 원주민이 안 나타나 의심한다.⁵⁾
- ㄴ) 소설 : 크리스티안느와 아이의 안부를 물음
- ㄷ) 식당창문 : 원주민이 되돌아감이 보인다.
동그라마가 있는 우둘우둘한 유리창
- ㄹ) 밀-빠뜨 : 흔적있다.
- ㅁ) 식당창문 : 주차(북쪽으로)된 트럭, 반만열린 유리창
승용차(La grosse conduite-intérieure bleue) : A...가 내려 창안으로 얼굴을 들여민다.

2-3) 저녁식사

- ㄱ) 음료수 따르는 태도 :
- ㄴ) 고장난트럭 : 자동차를 고치는 자세한 이야기와 새자동차를 구입하겠다고 프랑크가 말한다.
- ㄷ) 여행계획 : 자동차 사러 항구도시까지 가는 여행에 A...를 데리고 간다고 프랑크가 선언한다.
- ㄹ) 밀빠뜨 : 그순간 A...가 징그러운 곤충을 발견한다. 입을 닫지 못한 채 떨고 있다. 프랑크가 선뜻 일어나서 그 곤충을 내프킨과 발로 짓이겨 죽인다.

5) 식당에서 마당을 내다보는 남편의 시선 움직임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이 주제부에서는 1장형식과는 달리 같은 문장의 되풀이로 각 단락을 구별지어 주지 않고 도리어 단락구분에 혼돈이 오도록 같은 단어를 되풀이 쓰고 있어, 마치 음악연주에서 악장과 악장사이의 어떠한 공백기간없이 연속 연주하여, 새로운 주제의 출발점을 미리 알려 주지 않는 것과 같다.

1) 아페리티프에서 2) 점식식사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 1)의 끝부분은 테라스에 앉아있는 A...의 뒤에서 본 머리모양으로 (Le chignon de A... vu de si près, par derrière, semble d'une grande complication.(p.52), 2)의 첫부분을 옆에서 본 머리모양("Le chignon de A... est au moins aussi déroutant lorsqu'il se présente de profil. Elle est assise à la gauche de Franck(... à sa gauche pendant les repas dans la salle à manger)"(pp52-53)으로 적어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2) 점식식사에서 3) 저녁식사로 달라진 상황에도 마치 전이가 안 되는 듯 2)의 끝문장의 명사를 3)의 첫문장이 대명사(celui-ci)로 받고 있다.

"Elle(A...) risque en se redressant de défaire sa coiffure... à la rencontre du conducteur resté au volant.

celui-ci est encore là pour le dîner..." (p.58)

2) 점식식사에는 앞장의 식사 중심이라기 보다 식당 창문과 그것을 통하여 보이는 안마당(La cour)의 상황이라 하겠으며 새로운 주제의 제시이다.

3)의 저녁식사는 1장의 주제부 1), 2)에 해당되는 것임은 "celui-ci est encore là pour le dîner, affable et souriant."(p.58)으로 시작되는 문장이 곧바로 1장 주제부 "Pour le dîner, Franck est encore là, souriant, loquace, affable."(p.17)를 연상시키며, 그 뒤 내용도 요약아니면 확대 세밀형식으로 쓰여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상황임을 프랑크의 흰 샤츠 묘사 반복으로 증명하고 있다.

두 사람의 관계는 1) 음료수 따르는 태도에서, 앞장의 밤이 아닌 낮으로, 넘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 쳐다보다 철철 흐르게 하는, 대위법(contrepoint)으로 변형을 만들면서 무척 친밀해져 있는 관계를 암시한다고 하겠다. 한편 서재를 두 번씩이나 들어가 나란히 앉아 있는 두 사람을 염탐하는 남편의 집요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II - 3

3장 도입부(pp64-68)는 그림자 위치로⁶⁾ 이른 오후를 알리고, 방을 중심으로 서쪽 창쪽의 바나나

6) L'ombre raccourcie du pilier qui soutient l'angle du toit se projette sur les dalles de la terrasse en direction de la première fenêtre, celle du pignon.(p.67)

발경치를 언급하고, 방안에서 머리빗고 있는 A...의 묘사로써 2장에 이어 1장 도입부의 또 다른 변형을 이룬다.

1장의 부동상태의 머리카락에서 2장의 눈에 띠지 않는 머리카락의 움직임이 더 발전해 위에서 아래로의 규칙적이고 반복적이고 능동적인 동작에 이르렀음을 볼 수 있다.

주제부는 점심식사, 서재, 아침식사로 나눌 수 있다.

3-1) 점심식사

ㄱ) 식사태도 : 프랑크 없이 먹는 A...는 뻣뻣하고 말이 없다. 정확한 손놀림으로 참새구이같은 작은 새를 능란하게 해부해 먹는다. 식사가 끝난 후에도 A...는 여전히 프랑크의 자동차 소리가 들려오지 않나 귀를 기울이는 것 같다.(1-2)-ㄴ)의 변형이다.

ㄴ) 식당창문 : 열려져 있는 유리창(2-2)-ㄹ)

승용차 : A...가 내린다. 머리모양은 헝클어뜨리지 않은채, 혼자만 당당히 걸어 들어온다.

ㄷ) 집안배회 : A...의 돌아옴을 목격한 남편은 식당-복도-서재로 들어가, A...의 구두소리를 추적한다.(2-1)-ㄹ). A...의 걸음이 서재 앞에 멈춘다. 그러나 그것은 맞은쪽 방에 들어 가기 위해서였다. 남편의 기대가 허물어짐을 본다.

3-2) 서재 : 서재 안과 밖의 묘사이다.

ㄱ) 사진 : 여름방학 때 유럽에서의 A...의 사진, 책상 위에 있다.

ㄴ) 아페리티프 : 2-1)-ㄹ)의 끝부분과 같다.

ㄷ) 동쪽창문 : 귀뚜라미의 대귀로서 아침새가 그려져 있다. 정원에 심어진 오렌지나무에 아침 이슬이 보인다.

3-3) 아침식사

테라스에 일인용 상차림이 있다. A...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2장에서와 같은 주제를 발견한다. 유리창묘사, 승용차에서 내리는 장면, 집안배회장면, 서재에서 엮본 A...와 프랑크의 굳은 자세장면으로서 2장 주제부의 변형이라 보겠다. 3-1)-ㄱ) 식사태도는 1-2)-ㄴ)의 변형으로 볼 수 있겠다.

프랑크 부재시 A...의 굳고 말없음과 아주 세밀한 기교를 요하는 작업도 어려움없이 능숙히 해나가는 A...의 능력은 사진속의 A...의 태도와 당당히 걷는 모습“(elle) se dirige seule, de son pas décidé, vers la porte centrale...”(p.75)이 증명하고 있는 것 같다. 복잡한 모양의 쇠로된 의자에 자연스런 태도로 앉아 있는 사진속의 A...는 당당함을 잃지 않고 있다.

“A..., dans sa façon de se tenir sur ce siège, montre selon son habitude beaucoup de naturel, évidemment sans la moindre mollesse”(p.77)

도입부와 함께 A... 능동성, 능력을 나타낸 A...의 장이라 할 수 있겠다.

II - 4

4장은, 2장 도입부의 쪼그리고 있는 원주민과 그의 맞은편 사디라폴 바나나밭으로 간단히 도입부가 구성되었으며, 주제부는 아페리티프, 아페리티프, 점심식사, 점심식사, 카페로 나누고 있다.

4-1) 아페리티프 : 2-1)-ㄷ)의 변형이며, A...가 얼음을 가져온 상황이다.

ㄱ) 여행계획 : 2-3)-ㄷ)의 변형으로 여행 출발시각 결정을 A...와 프랑크의 직접화법으로 나타내고 있다.

ㄴ) 소설 : 일반인이 갖고 있는 소설에 대한 견해⁷⁾를 남편은 비웃고 있다. A...가 소설을 다 읽은 후의 대화로 2-2)-ㄴ)의 변형이다.

4-2) 아페리티프

ㄱ) 여행회상 : A...와 프랑크의 여행후의 회고담이다. 10시경에 도착하여 별 이상이 없었다.

ㄴ) 자동차고장 : 그러나 저녁먹은 후 모든 정비소가 닫힌 후에야 공교롭게도 자동차고장이 나타나 하루밤을 호텔에서 보냈다.

ㄷ) 이별 : 프랑크가 지체된 귀로의 책임을 지며 지친 얼굴로 미안해하며 떠난다.

ㄹ) 집안배회 : 프랑크가 떠나는 순간부터, 집안과 안마당에서 들리는 소리로써 A...의 행동과 프랑크의 떠남을 알수 있으며, 동시에 남편은 식당에 들어가 식사하며 A...가 들어올 때까지 A...의 여행을 정리해보고 있다.(2-1)-ㄹ), (3-1)-ㄷ)가 연상된다.

7) 소설속의 소설비평이다. mise en abyme인 셈이다. 소설이란 소설가치를 보아야 한다. 장소, 사건, 인물이 아니라 “있음직한 일, 앞뒤가 맞는 견고성 이야기의 가치”를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다.

“de mettre en cause la vraisemblance, la cohérence”,... “qualité du récit”(p.82)

4-3) 점심식사

- ㄱ) 여행계획 : 보고하는 문체이고 따져들어가는 논리로써 여행의 동기와 상황을 살피고 있다.
- ㄴ) 크리스티안느안부 : 남편의 제의에 그녀는 여행에 안 따라 가겠다고 했다고 프랑크가 말한다.
- ㄷ) 소설 : 중심전환점에 있다.
- ㄹ) 식당창문 : 닫힌 창문에 트럭이 집쪽으로 주차되어 있다.

4-4) 점심식사

- ㄱ) A...의 옷 : 달라붙는 옷을 입고 A...가 식당에 들어선다. 위의 4-2)-ㄷ)의 연속이다 : 끝 문장 “La table est mise pour une seule personne. Il va falloir faire ajouter le couvert de A...”(p.90)이 “Par la porte ouverte de l’office, A... pénètre dans la salle à manger, se dirigeant vers la table servie... Elle va s’asseoir à sa place, le dos à la fenêtre, devant un couvert intact, que le boy a rajouté pour elle.”(p.93)로 연결되어 추리가 가능하다.
또한, A...가 목욕탕에 들어갔다는 문장은,
“...le verrou en est poussé de l’intérieur, d’un geste vif qui fait claquer le pêne”(p.89)가 A... s’est entièrement changée après avoir pris sa douche. Elle a mis la robe claire, de coupe très collante...”(P93-94)
으로 이어져 그 사이에 남편은 먹기 시작⁸⁾함과 동시에 앞단락의 점심식사상황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대준다.
- ㄴ) A...와 남편과의 대화 : A...는 여행동안의 집, 안부를 묻고 남편은 여행에 대해 묻는다.⁹⁾
- ㄷ) 식사창문 : 우둘우둘한 창문에 앞바퀴뒤의 몸체가 비틀어져 보인다.

8) “...du plat encore chaud, entamé durant son séjour dans la salle de bains”(p.94)

9) 이들의 대화는(pp.94-96)는 discours raconté이다. A...의 질문 “Elle s’inquiète ensuite des événements éventuels survenus à la plantation pendant son absence.

남편의 대답 : “Sur la plantation aussi, ce temps a été bien employé;

남편의 질문과 A...의 대답 : “Elle-même, interrogée sur les nouvelles qu’elle rapporte, se limite à quatre ou cinq informations connues déjà...”

이와같이 나타냄으로써 독자는 작중 인물(personnage)로서 남편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된다.

4-5) 커피

- ㄱ) 밀-빠뜨 : A...가 호텔방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자 밀-빠뜨의 살해장면이 되살아난다. 물론 2-3)-ㄷ)의 반복이다. 커피를 마시러 테라스에 가기 직전의 사건임을 램프에 비친 그의 그림자와 보이에게한 명령으로 안다.
- ㄴ) 여행계획 : A...와 프랑크는 대화거리를 찾지 못하고 점점 밤의 침묵에 휩싸인다. 1-3)-ㄷ)의 되풀이이다.

4장은, 여행에서 돌아온 날의 묘사가 새로운 주제로 첨가되어 중심부를 이루고, 시작과 끝은 여행전 상황(2장의 주제)을 반복함으로써 대칭을 이루는 반면에 독자를 당황케 한다. 이야기의 절정이랄 수 있는 A...와 프랑크와의 사이에서 여행중에 일어났을 어떤 일을 생략하고 곧바로 여행 후의 A...의 천연스러운 언행을 묘사함은 독자의 기대감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2장에서처럼, 단락 4-1)에서 4-2)로 넘어가는 곳에서 또 한번 독자는 당혹한다. "Pourtant, dit-il, ça avait très bien commencé." 이 문장은 4-2)의 시작인데 4-1)의 연속으로 읽어나가면 "ça"라는 대명사는 "소설"을 받게 되나, 그 다음 문장 "Nous étions partis à l'heure prévue..."(p.84)과 연결시키면 "ça"는 "여행"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느슨한 독자를 채찍질하는 작가의 계교 내지는 독자의 적극적 참여를 구하는 초청이랄 수 있겠다.

II-5

5장도 여전히 앞장들과 똑같은 구조의 조직이다. 새로운 주제, 원주민의 노래와 다리수리중인 5명의 인부들묘사로 바나나밭을 대신하는 도입부의 변형을 또 하나 만들고 있다.(pp.99-105)

원주민노래-A...편지쓰기-원주민노래-다리위에 조그리고 있는 인부들-A...편지쓰기-인부들-A...가 창가에서 편지들고, 맞은편 기슭을 바라보며 원주민 노래를 듣고 있다.

주제부는 아페리티프, 식사, 방을 배경으로 이제까지 여러번 되풀이된 A...의 편지쓰는 작업과 A...와 프랑크의 친한 관계를 연결시키고 결정지워주는 편지전달사건에 중점을 두고 있다.

5-1) 아페리티프

- ㄱ) 열음 : 열음없는 상황으로 2-1)-ㄷ)과 ㄴ)을 요약한 반복이다. 첨가요소로 8번 접은 편지끝이 프랑크의 카키색 옷저고리 앞주머니에 비죽 보인다.
- ㄴ) 인부들 : 도입부에 나온 그들이, 계속되는 상황임을 암시한다. 오전에 쓴 편지가 전달되었다는 뜻이다.

- ㄷ) 이별 : 4-2)-ㄷ)의 변형이다.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아페리티프를 단숨에 들고 떠날 때에 지은 프랑크의 일그러지고 순간적인 미소가 강조되어있다. 잔에는 얼음흔적이 없다.
“il n’y a plus trace du cube de glace dans le fond”(p.108)
- ㄹ) 이별 : 프랑크가 떠난 뒤, 그의 잔에는 얼음이 남아 있다 “Au fond du verre qu’il a déposé sur la table en partant, achève de fondre un petit morceau de glace, …”(p.109)로 위의 이별과 구분된다. 5명의 인부들 위치가 자세히 묘사되고 있다.
- ㅁ) 두사람위치 : 2-1)-ㅁ)의 변형.
A…와 프랑크의 앉은 자리가 바뀌었다. 보이를 불러 티테블을 A…가 가까이 옮기게 한다.

5-2) 식사

- ㄱ) 식사태도 : 프랑크의 굉장한 식욕과 힘찬 손놀림.¹⁰⁾
1-2)-ㄴ)의 변형으로 확대 세밀묘사이다.
- ㄴ) 밀-빠뜨 : 2-3)-ㄱ)과 4-5)-ㅁ)의 변형으로 간단히 요약한 한편, 죽이는 순간을 지켜 보던 A…가 식탁보를 끌어당겨 골을 지게 한다. 상보끝에 프랑크 손이 보인다.
- ㄷ) 손 : 프랑크 손은 웃웃주머니에 빠져나온 편지를 들여밀고 있다. 프랑크뒤의 찬장에서 창문으로 시선이 옮겨진다.
- ㄹ) 승용차 : A…가 내리고나서 머리를 차안에 넣어 선물 뭉치를 모으는 중이다. 이것은 여행 귀가 때 일이다. (8-3)-ㄱ)
- ㅁ) 집안배회 : A…가 집 내부구조로부터 맞은쪽 바나나숲을 건너 집에 이르는 길까지 훑은 후, 크리스티안 방문을 마친 끝에 집으로 들어오고 있다.

종결부 : 방안에 들어온 A…가 덧문을 닫으면서 귀 기울림-원주민노래-창닫음-거울앞에서 머리빚음-침대에 누워있는 A…-큰서랍장(la grosse commode)에서 편지찾아 8번 접힌 자국이 있는 편지 다시 읽음-편지썸-옷장(L' armoire)곁에 있음-A…가 보이지 않음.

짧은 주제로 이어진 종결부는 도입부와 같은 내용과 구조로서 이제까지 전개된 5장 전체를 매듭짓는

10) 말하는 태도와 먹는 태도를 같은 단어로써 표현하여 힘이 언제나 넘치는 사나이임을 환유법(métonymie)을 써서, 암시한다.

“Frank raconte son histoire de voiture en panne, riant et faisant des gestes avec une énergie et un entrain démesurés.” (p.110)

“Il absorbe son potage avec rapidité… il semble mettre en oeuvre pour cette modeste besogne une énergie et un entrain démesurés.” (p.23)

효과를 갖는다. 모든 도입부는 1장 도입부의 변형이기 때문이다.

한 단락내에 두번의 이별장면과 두번의 승용차 하차장면은 독자에게 혼란을 주는 요소이긴 하나 한편으로 여행직후 프랑크와 A...의 상반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두사람관계에 어떤 모순점을 제시한다.

새로운 주제없이 앞에서 나온 주제반복의 구성으로 된 5장에서, 독자는 A...가 그렇게 골돌히 쓰던 편지수신인은 다름아닌 프랑크이었고, 그것은 다리 고치던 날, 카키색 셔츠를 입은 날, A...가 열음을 갖고 오지 않은 날이었다는 것과 동시에 A...의 계산된 행위를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프랑크의 넘치는 힘과 함께 징그러운 곤충, 밀-빠뜨를 죽인 용기의 상징성을 간파할 수 있다.

II-6

1부에서 5장에 걸쳐 토막쳐서 표현된 그래서 반복된 주제 및 상황이 A...와 프랑크의 의심나는 관계 및 증거를 찾는 남편의 집요한 시선에 의한 표출이라면, 2부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두 사람의 부재시 혼자서 보낸 하루반동안의 남편의 행각을 시간맞춰 묘사한다고 하겠다. 이제까지의 주위풍경묘사로 된 도입부와는 달리 A...가 물건사러 프랑크와 같이 떠나서 집이 비었다라는 간단한 도입부와 남편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테라스, 서재, 식당등의 위치로서 주제부의 단락을 구분할 수 있겠다.

6-1) 테라스 : 이동하는 시각에 따른 장면묘사이다.

ㄱ) 의자자국 : 두사람의 부재중 의자를 내다 놓지 않아 그 자리의 자국이 약 10cm간격으로 있는데, 서재창을 통해 내려다보면 안 보인다.

6-2) 서재

ㄱ) 책상위 사진 : 사진속에 복잡한 조각으로 된 상과 의자들이 비어있다.

3-2)-ㄱ)의 변형

6-3) 식당 : 한사람만을 위한 식탁이 차려있다.

ㄱ) 트럭자국 : 세차나간 트럭위치에 기름자국이 있는데 유리창의 흠집을 통하여 그 자취를 사라지게할 수 있다.

ㄴ) 밀-빠뜨자국 : 분명히 드러나는 흔적을 지우개, 면도칼, 손톱등으로 없앤다.

6-4) 서재

ㄱ) 책상위 사진 : 방안에서 골몰하고 있는 A..., 테라스에서, 응접실에서, 목욕탕에서 길이 통하는 먼 곳으로 시선을 두고 있는 A...모습이 보인다.

6-5) 테라스 : 5장 도입부, 1장 도입부끝의 변형.

ㄱ) 램프 : 아주 깜깜하여 보이가 가져오고, A...는 거절한다. 1-1)-ㄱ)

ㄴ) 램프 : 여행 떠날 채비중인 A...의 방안으로 가져갔다. A...는 떠났다. 6시 30분에.

도입부의 텅빈느낌은 조그만 간격을 두고 되풀이 되는 문장에서 강조되고 있다. “Maintenant la maison est vide.”(p. 122) “En attendant, la maison est vide.” “La terrasse est vide également.” (p.123) “Il n’y a personne sur cette terrasse, comme dans tout le reste de la maison” (p.126) A...의 부재로 인한 남편의 심정이다.

그 감정은 다시 텅빈 의자자국에서, 의자에서, 트럭자리에서 되풀이되어 강조된다.

밀-빠뜨자국을 정성들여 지워버리는 긴 행위묘사는, 남편의 점심식사후의 시간소요는 물론, 질투하는 마음의 표출이다. 즉, 프랑크의 넘치는 힘과 용기를 증명해주고 상징하는 밀빠뜨자국을 없애는 행위는 프랑크의 힘과 용기를 부인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그로 인한 프랑크와 A...와의 관계를 부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사진속의 A...는 다른 4장면의 A...를 연상시킨다. 그것은 시간 순서대로 되어 다시 사진으로 왔을 때는 어두어진 때이다. 늦은 오전, 이른 오후, 늦은 오후, 일몰전이다. 골몰해있는 A...의 처음 모습(pp 133-134)은 2장의 도입부(pp 43-44) 연상으로 알아낼 수 있다. 두번째 테라스에서는 A...의 그림자와 해의 높이로 추리된다. “A... est debout sur la terrasse, ...Elle est en plein soleil... Som ombre raccourcie se projette, perpendiculaire, sur le dallage... Le soleil est presque au zénith”(p.135)

세번째 응접실에서는 그림자의 두께로이다.

“A... se tient debout contre une des fenêtres closes du salon, juste en face du chemin... la cour poussiéreuse, dont l’ombre de la maison obscurcit une bande large d’environ trois mètres. Le reste de la cour est blanc de soleil”(p.136-137)

끝으로 사진으로 되돌아왔을 때는 즉 환영에서 깨어났을 때는, 남편은 어둠을 인식한다.

“Dans tout le bureau brusquement le jour baisse. Le soleil s’est couché. A... déjà est effacée complètement. La photographie ne se signale plus que par les bords nacrés de son cadre, qui brillent dans un reste de lumière”(p.137)

따라서 오후시간내내 남편은 사진으로 인한 A...의 환영으로 날이 어두워진 줄도 모르고 A...의 생각만 했음을 시사한다.

황혼이 깊어감을 A…가 테라스에서 보았을 5명의 인부들이 있는 강물의 반사와 A…가 어둠으로 책을 덮고 난 후 들었을 벌레소리로써 대신하고 있다.

이주 깜깜했을 때, 보이가 가져오는 램프는 세계의 다른 상황을 제시한다. A…가 떠난 날 저녁(보이의 걸어오는 모습), A…가 여행 떠나기전 어떤 날 저녁(A…가 램프 거절하는 장면), A…가 떠나던 날 새벽(방안에 놓여 있는 램프)으로 앞에서 느리게 변하던 상황에 비해 예기치 않은 속도로 바뀌는 환영¹¹⁾이며 독자를 당황케 하는 요소이다.

이렇게 이장은 한낮직전에서부터 깜깜한 밤에 이르기까지 남편이 겪은 공허와 A…의 환영들이 대변하는 A…에 대한 사랑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II - 7

7장은 아침부터 빈집이라며 저녁 6시반의 일몰묘사로 시작된다.¹²⁾ 이것은 앞장의 일몰장면 6-2), p.138)과 연결되어 6장끝을 잇는 7장의 도입부라 하겠다.

주제부는 6장과 같은 방식으로 밤시간의 흐름을 식당, 테라스, 방 등의 장소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겠다.

7-1) 식당 : 저녁먹으려는 A…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남편의 확신이 있다. (“A…ne doit pas rentrer pour le dîner…” p.144). 식탁엔 일인상이 차려있고 단 하나의 램프가 밝히고 있다.

ㄱ) 밀-빠뜨 : 램프빛을 환히 받은 자국에서 왼쪽 첫번째 다리만 온전하며, 뺨어 있어 관절의 구분이 어려우게, 직선으로 되어있다. (2-2)-ㄷ)중의 왼쪽 다리만 확대한 것이다.

11) 실제로 A…도, 보이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

“A… cependant n’a pas bougé d’une ligne. Elle n’a pas ouvert la bouche pour parler, sa voix n’a pas troublé le vacarme des Criquets nocturnes; le boy n’est pas venu sur la terrasse il n’y a donc pas apporté la lampe, sachant très bien que sa maîtresse n’en veut pas.”(p.141)

12) Il est maintenant six heures et demie. Le soleil a disparu derrière l’éperon rocheux. c’est la nuit noire figée … pleine du bruit assourdissant des criquets qui semble durer depuis toujours”(p.144)

- ㄴ) 계 : 접시에 그려져 있다. 아가미부분 돌기에서 소리를 만든다. 밀-빠뜨가 내는 소리와 비슷하다.
- ㄷ) 램프 : 끊임없는 식식소리(son sifflement continuel)가 다른 소리 듣는 것을 방해한다.

7-2) 테라스 : 작은 상(la petite table)과 낮은 의자 하나가 놓여있다.

- ㄱ) 램프소리 : 동물소리(un cri de bête)가 들릴 때마다 램프소리는 사라진다. 밤이 깊었다.
- ㄴ) 모터소리 : 멀리서 들리는 희미한 소리로 표현되었다. (“Un bruit plus discret, comme un ronronnement”) A…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A…n’es past encore rentree)라는 남편의 의견이 첨가된다.
- ㄷ) 날벌레들 : 램프주위를 타원형으로 돌고 있는 날벌레들, 혼동된 것같은 현상속에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균일성이 있다.¹³⁾
- ㄹ) 동물소리 : 동물의 위치를 소리로 안다. 1-3)-ㄷ)의 변형이다.
- ㅁ) 모터소리 : 앞의 소리와 비교되어 더 둔탁하지만 포착이 더 쉬워진 소리, 말하자면 짐승소리같기도 하고 기계소리같기도 한 소리이다.
- ㅂ) 램프소리 : 꾸준히 일정한 소리로 온세상을 덮는다.
- ㅅ) 날벌레들 : 램프 가까이 왔다가 곧 상위로 떨어져 버리는 날벌레들.
- ㅇ) 모터소리 : 자동차 모터라고 밝힌다. 가까이 올라옴에 따라 크게 들러 승용차가 아님을 알게 되고 집을 돌아 프랑크네쪽으로 사라진다. 남편의 독백이¹⁴⁾ 첨부된다.
- ㅈ) 날벌레들 : 여러개의 타원형이 엉켜 있다.
- ㅊ) 자동차고장 : 남편의 추리로 있을 수 있는 고장을 말하고 있다.
- ㅋ) 모터소리 : 이번에는 항구로부터 오는 빈 트럭이다. 부두에 배 “Cap Saint-Jean”이 정박되어 있다.

7-3) 방 :

방에 걸려있는, 주제가 항구인, 달력을 보게한다. 달력-벽-외벽-테라스타일-복도타일-식당 타일의 순으로 묘사한다. 모두 규칙적인 간격을 갖고 있다. 램프의 이동에 따라 어지러움증을

13) 소설속에서 소설의 구조를 상징하는 역할이라 하겠다. 날벌레들처럼 들쭉날쭉하여 체계가 없이 보이는 사물묘사는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보면, 전체 짜임의 일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이 소설의 구조를 대신 설명하는 또 다른 mise en abyme 이다.

14) A… devrait être de retour depuis longtemps (p.154)

준다. ¹⁵⁾

7-4) 식당 :

- ㄱ) 항아리(*la cruche indigène*) : 램프에 비쳐 더 커져 보인다.
- ㄴ) 밀-빠뜨 : 거대(*gigantesque*)하다. 램프에 의해 살아 움직인다. 소리(*le grésillement léger*)도 낸다. 2-3)-ㄷ) 변형.
- ㄷ) 빗질 : 밀-빠뜨 소리가 빗질소리라고 한다. (“*Le bruit est celui du peigne dans la longue chevelure*”)
- ㄹ) 밀-빠뜨 : 움직임과 소리의 되풀이이다.
- ㅁ) 프랑크 : 밀-빠뜨를 냅킨(*serviette*)과 발로 짓이긴다. 그리고 침대로 되돌아오면서 목욕탕에 수건(*la serviette de toilette*)를 건다. 같은 모양의 단어 “*serviette*”는, 식당에서 목욕탕을 거쳐 침실로 가는 프랑크로 둔갑시킨다.
- ㅂ) A...다섯 손가락에 움켜져 주름을 만드는 것은 시이트(*le drap blanc*)이다. 이제껏 되풀이되던 식탁보(*la toile blanche 5-2*)-ㄴ)가 아니다. 모기장이 무너져 침대에 떨어진다. A...가 식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호텔방 침대에 있음을 시사한다.
- ㅅ) 프랑크 : 자동차에 속도를 가하던 프랑크가 견고한 나무에 부딪치어 자동차에 불꽃이 일고 불꽃티는 소리를 낸다. 그 소리는 다시 밀-빠뜨소리다. (“*c’est le bruit que fait le mille-pattes, de nouveau immobile sur le mur...*”(p.167)더 잘 들으면, 그 소리에는 불꽃티는 소리만큼 숨소리 즉 빗질소리도 있다. (“*A le mieux écouter, ce bruit tient du souffle autant que du crépitement : la brosse maintenant descend à son tour le long de la chevelure défaite*” p.167)

7-5) 방 :

달력-편지끼우개(*le sous-main*)에 끼워져 있던 지운 자국 있는 편지-책상 설합 속의 편지뭉음과 봉투뭉음과 연필, 지우개, 소설과 우표10장-큰서랍장속 설합의 오래된 편지들. 아프리카 혹은 유럽의 우표가 있는, 친적으로 부터, 친구로부터 온 편지들-발자국 소리아님. 도

15) 램프의 움직임으로 알 수 있다.

“*Lorsque la lampe se balance un peu, au bout du bras tendu, toutes ces lignes aux courtes ombres mouvantes paraissent animés d’un mouvement général de rotation*”(p.160)

“*Le léger bercement de la lumière quis’avance le long du couloir agite la suite ininterrompue des chevrons d’une ondulation continuelle, semblable à celle des vogues*”(p.162)

마뻐 떨어지는 소리-간헐 방 달력(서있는 사람과 떠 있는 뭉치)-정전-빗질-아침이 되어 열어 놓은 채 있는 서랍을 닫고, 문을 열고, 복도를 걷는다.

7-6) 테라스 :

아침식사를 보이가 가져 오다. 그리고 마담이 귀가하지 않았다라는 질문인지 긍정문인지가 구별되지 않게 말하고 되돌아간다.-아침풍경(3-3) pp78-79)과 인부들-프랑크네 하인의 보고-보이가 상처울 때, A…는 아직 기침전이다. A…는 오늘 아침 떠났다.-덧문의 규칙적인 배열, 저녁 6시30분 일몰과 A…가 저녁 먹으러 오지 않으리라는 남편의 확신(7-1)이 되풀이된다.-테라스는 비었다.(6장 도입부)-A…가 덧문의 틈을 통하여 밖을 내다본다.

6장끝 저녁무렵을 이은 7장은 우선 저녁식사로부터 그 이튿날 아침식사로 되어있다. 그 시간의 흐름은, 혼자뿐인 식탁차림, 테라스램프주위의 여러 소리들, 깊은밤 방에서 들은 정체구분이 불가능한 발자국소리, 정전, 램프없는 밤의 적막,¹⁶⁾ 아침 풍경등의 지표로 파악된다. 밤은 길게 아침해는 짧게 묘사되었는데, 두개의 아침상황을 (“A…n’est pas encore levée”)와 “Elle est partie très tôt”. (p.179)를 나란히 적음으로 단순하던 시간의 흐름에 복선이 되게함과 동시 7장끝이 6장으로 되돌아감으로써 2부의 끝맺음임을 표시한다.

바뀌가며 묘사된 다양한 종류의 소리는 남편의 행동, 사고, 상상의 추적을 가능케 한다.

테라스에서 조금씩 파악되는 모터소리는 A…를 기다리고 있는 남편의 주위력을 시사한다. 모터소리가 승용차가 아닌 트럭이었을 때는 늦어질 수 있는 가능성, 이유등을 부쳐 A…가 늦음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논리적 사고력을, 빈 트럭소리는 A…가 가 있는 항구를 연상하는 상상력을, 그로 인한 A…와 프랑크와의 불륜의 장면을 밀-빠뜨소리와 빗질소리로 상징화하는 그의 질투심을, 그에 따른 증거를 찾고자 설합속의 편지지와 봉투를 밤새껏, 자가발전의 전등이 나갈때까지 뒤지는 남편의 집요함을 간파할 수 있다.

전혀 상관없는 다양한 소리로서 이 소설의 절정을 이루는 높은 기교를 엿볼 수 있다.

16) 밤이 깊어감을 소리의 사라짐으로 나타내었다.

“Cela pourrait être un bruit de pas sur le dallage. Pourtant le boy et le cuisinier doivent être couchés depuis longtemps”(p.170)

“Les bêtes ont aussi dû se taire, une à une, dans le vallon. Le silence est tel que les plus faibles mouvements deviennent impraticables.”(p.173)

II - 8

8장은 끝에서부터 두번째에 위치한 장이며, 이제껏 모든 주제가 다 등장한다. 도입부에서는 A...의 움직임과 그에 따른 시각변경으로 인한 바깥 경치지적이 그려지는데 2장 도입부후반을 연상시킨다. 난간의 벗겨진 칠-A...가 내다보다.-쪼그리고 앉아있는 원주민과 그의 앞에 펼쳐진 바나나밭-트럭 변속소리에 응답하듯 빗장소리와 함께 A...의 아침인사-A...의 순간적인 사라짐-바나나밭과 칠 벗겨진 난간과 도마뱀-큰 서랍장앞에서 찾고 있는, 아니면 정돈하고 있는 A...-큰 옷장앞의 A...-작은 책상앞의 A...-서쪽 창가의 A...-정원에 떨어진 그림자-A...가 없다.-방이 빈 것 같다.

변형을 이루는 부분은 “방이 지금 빈것 같다.”(La chambre est maintenant comme vide, p.187)로부터 “방이 다시 빈것 같다.”(La chambre est de nouveau comme vide, p.188)까지로, 빈 방이 되는 이유가 A...의 외출로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구석에 있기 때문(“...il demeure plus probable qu'elle s'y trouve toujours, hors du champ de vision...”(p.187) 이라고도하나, 끝없는 외계로 연결시켜주는 문이 있으므로써 A...는 방에 없다고 가정하며 방이 빈 것 같다고로 끝맺는 변형을 주었다. 따라서 6, 7에서의 “비었다”라는 의미의 번복을 가져올 수 있다.

8-1) 아페리티프 : 앞의 도입부와 같은 형식을 이용하여 이제까지 나온 주제를 짧게 되풀이한다.

손위치(1-3)-L)-여행계획(4-1)-Γ), (4-3)-Γ), 크리스티안느 안부(4-3)-L)-, 원주민노래 (5장의 도입부 및 종결부)-소설(4-3)-C), (2-2)-L), (4-1)-L), (1-2)-C)-원주민노래-자동차고장(2-3)-L), (4-2)-L)-도마뱀(margouillat) (1-3), -원주민노래¹⁷⁾-여행계획(2-3)-C)-(4-5)-L)-(4-1)-Γ)

주제, 소설에서는 새로운 내용으로 백인여성이 흑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에 대한 A...와 프랑크의 의견을 첨가시키고 있다. 두번째 원주민 노래에서는 다리에 쓰일 통나무를 살충제에 담그고 있을 원주민의 행위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흘러나오는 노래라는 설명이 덧붙여 있다.

도마뱀 주제는 1장에서 커피마실 때의 배경설명으로 떨어져나간 칠로 인한 얼룩진 난간의 형태가

17) 원주민 노래에 관한 것은 A...의 말: “Il a une belle voix, ce garçon.” dit A..., au bout d'un assez long silence.”은 이것 뿐이나, 이것은 아페리티프를 마시는 동안의 시간의 흐름을 대신해주는 효과가 있다. 주제로 보면 이 단락은 여러 장에서 이미 나왔던 것의 되풀이이다. 따라서 앞 부분을 몰라도 이 부분은 자연스런 이야기로 읽힐 수 있다.

이장의 도입부에서 도마뱀이 되는 것을 본다. 불안간 나타나서 사라지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칠벗겨진 곳이 바로 도마뱀의 출현으로 바뀌었다. 1~5장에서 단편적으로 나누어져서 쓰인 배경의 주제를 합쳐 점심식사전의 총체적인 상황, 아페리티프로 변화시키고 있다.

8-2) 테라스 : (1-1), p.17)과 (1-2)-ㄱ), p.21)의 문장을 따서 그대로 쓰면서 프랑크가 온 것은 저녁이 아니라 점심 때임을, A...의 옷으로써 프랑크가 자기 아내와 싸운 것은 점심 때가 아닌 그 전날 저녁이라고 밝힌다.(p.197) 그리고 프랑크는 고장난 자동차 이야기를 한다.

ㄱ) 자동차고장 : 트럭이 아닌 승용차고장이므로 여행하던 날에 있었던 고장을 연상시킨다.(4-2)-ㄴ) 그러나 그 후에 어떤 날임을 다음문장에서 명시한다. “celui-ci (Franck) devrait, a ce moment, faire une allusion a l'incident analogue qui s'est produit en ville lors de son voyage avec A...” 여행때 지체된 귀가를 변명하던 (4-2)-ㄷ)때의 장면으로 끝맺는다. 사이사이의 도마뱀이 시간의 흐름을 대신한다. (pp.199, 200, 201)

ㄴ) 프랑크가 떠난 후의 A... : 1-1)로 되돌아가 소설책을 옆에 놓아두고 앞을 응시하는 A...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어제 저녁부터 읽기 시작한 소설, 무대가 아프리카라고 밝히고 있다.

ㄷ) 점심식사 : 남편과 A...만임을 마주보지 않는 겸상 “deux couverts”으로 표현한다. 벽위의 밑-빠뜨자리는 지워져 없음을 “la peinture nue”로 표현하여 여행후 어느 날을 재확인시 한다.

ㄹ) 식사후 A... : 다시 테라스로 나와 읽던 곳¹⁸⁾을 찾아 무릎위에 얹어 놓고 그대로 앉아 있다. 향구로 내려가는 가득 실은 트럭소리가 들린다.(8-2)-ㄴ)의 되풀이가 된다.

8-3) 정오 : 빈집에 빈 테라스에 트럭소리가 아니라 집으로 향하는 승용차 소리라고 고친다. 굴곡있는 식당창문을 통하여 본다.

ㄱ) 승용차 : A...와 프랑크가 동시에 내린다. 여행에서의 귀가이다. (5-2)-ㄹ)에 대한 정확한 시간 상황 제시이다.

ㄴ) 프랑크의 떠남 : (4-2)-ㄷ)

ㄱ) 그후의 A...의 행동 : (4-4)-ㄱ)의 최대의 요약이다.

18) 독서가 책의 $\frac{1}{4}$ 에서 중단되었다.: “Sa lecture... interrompue par l'arrivé de Franck, au premier quart de l'histoire.”(p.202) 접힌 분량이 1장에서와 비슷함은 시간의 흐름을 부인하여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한다.

8-4) 테라스

A...의 모습 (1-1)-ㄷ, 1-1), A...의 농장에 대한 질문: 여행에서 온날 (4-4)-ㄴ을 연상시키나 동시에 “오늘(aujourd’hui)”라고 함으로써 8-2)를 잇는 저녁 때의 상황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ㄱ) 춤곡: (1-3)-ㄱ)에서는 프랑크편에서 쓴 것이고 이곳은 A...의 편에서 짐작하는 것으로서 상황이 상세해졌다. “항구에서 리듬에 맞춰 춤추었던 유행가”, “peut-être une chanson à la mode, qu’elle a entendue en ville, au rythme de laquelle peut-être elle a dansé”라고 명시한다.

의자(1-1)-ㄷ)-램프(1-1)-ㄱ)-손위치(1-3)-ㄴ)-저녁식사중 여행계획(2-3)-ㄷ)-동물소리(1-3)-ㄷ) (7-1)-ㄴ)-프랑크와 A...가 차례로 사라짐. 이것은 새로운 주제이다.

A...는 자기방에(7-3)-ㄱ)-동물소리(7-1)-ㄴ)-(7-2)-ㄷ)-칠흙같은 밤(7-2)-ㄷ)

8-4)는 8-1)의 요약 되풀이로 드러난다. 8-2)와 8-4)는 여행후 어느 날 정오 직전으로부터 시작하여 한 밤에 이르는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데 1장으로 시작하며 7장의 주제로 끝맺고 있다.

도입부를 비롯하여 8장은 사건의 매듭을 푸는 정리부이다. 여행후에도 여전히 프랑크는 부인 동반 없이 오며, 여행 전과 같이, 똑같은 내용의 대화를 하나 전과는 달리 박심함을 나타내어 A...의 눈총을 맞고 일찍 자리를 떴다. 여행으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보인다. 조금 더 친밀해졌다고나 할까.

II-9

9장은 1장의 도입부부터 주제부의 아페리티프까지의 형식을 그대로 쓰고 있다. 도입부의 명시가 기둥 그림자의 길이로 “Maintenant l’ombre du pilier se projette sur les dalles, en travers de cette partie centrale de la terrasse, devant la chambre a coucher”(p.210) “Sur la terrasse, l’ombre du pilier s’est allongée encore” (p.214)되어 있어 오후를 암시한다.

도입부: 외벽의 물줄기흔적: 7-2)-ㄱ)의 변형이다.

방안의 A : 편지읽고 쓰고 있다. 낮은 해의 묘사가 있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 “Le soleil en effet, très bas dans le ciel, chauffe déjà beaucoup moins”(p.211)

편지 : 흰 봉투이며 최근 배달된 유럽에서 온 것이다. 1장 도입부(p.15)

머리카락 : 2장 도입부(pp.43-44).

배경묘사 6-2)-ㄱ)

골짜기 강물 : 2장 도입부 (p.37) 6-2)-ㄴ), p.138)의 변형. 해질때 반사되는 여러 모양의 물결표면

9-1) 아페리티프 : 크리스티안느방문후 A...가 들어온다. 3-1)-ㄴ), p.74.

프랑크 :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기전에 잠깐 들린 것이다.

아페리티프 : A...가 부르기도전에, 아페리티프시간이기 때문에 보이가 얼음과 두 병이 놓인 쟁반을 가져온다.

소설 : 쟁반옆에 있던 소설이 화제가 되어 A...와 프랑크가 활기 띠고 이야기한다.

소설주인공에 대해 긍정도 하고 부정도 한다. “Le personnage principal du livre est un fonctionnaire des douanes. Le personnage n'est pas un fonctionnaire mais...”(p.216)

A...의 친절 : 프랑크가 자기가 당한 트럭고장을 이야기할 때 A...는 손님대접으로 염려를 표현한다. 그리고 프랑크는 곧 떠난다.(1-1)-')

일몰 : A...는 난간에 팔꿈치를 괴고 일몰을 구경한다. 강물, 돌산, 바나나에 비친 햇살로 점점 어두워짐을, 그리고 “6시반이다 캄캄 한밤과 귀뚜라미 소리가...”로 끝맺는다. “il est six heures et demie. La nuit noire et le bruit assourdissant des criquets s'étendent...”.

9장 도입부는 오후를 뜻하는 기둥 그림자와 편지쓰는 모습으로, 주제부는 아페리티프의 일몰묘사로 1장과 같은 형식, 배경이나 내용은 반복되어 있다. 의심을 주던 편지발신지가 밝혀졌으며, A...와 프랑크와의 관계는 주인과 손님으로의 관계이며 그들의 규칙적인 생활 아페리티프(“il est presque l'heure de l'apéritif”(p.215)의 일면이 나타난 것으로 이제껏 의심갔던 바를 일소한다.

이렇게 끝장이 첫장과 연결되어 원을 그림과 동시 처음을 수정함으로써, 그 이후의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은, 남편의 상상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다.

III

이제까지의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을 수 있겠다.

1. 이 작품을 이끌어간 서술자, 남편이 어떠한 외형인지, 성격의 소유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질투를 느끼고 그것을 이야기로 형상화하는 능력은 대단하다고 하겠다. 그는 사건을 주시한 관찰자는 물론이고 수수께끼를 내듯, 독자를 이야기에 끌어들여, 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서술자로서의 존재를 뚜렷이 부상시키고 있다.
2. 사소하고 자세한 사물묘사는 주제가 되며, 삭제, 첨가 등으로 되풀이되는 주제변형은 상황에 변화를 주어 이야기 줄거리를 변경시켜 처음과는 엄청난 거리가 있는 A...와 프랑크와의 관계를 만들었다. 거꾸로 말하면 질투라는 격한 감정이 남편자신의 안목을 변형시키어 정신병자같은 착란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인간이 사물에게 부여할 수 있는 엄청난 개개인의 주관성의 형상화라고도 할 수 있겠다.¹⁹⁾
3. 시간의 흐름을 특별한 시간상황보어(*complément circonstanciel du temps*)없이 사물의 변화로써 대신한다.(그림자의 길이, 소리의 줄어듦 등). “Aujourd’hui, maintenant, a présent”과 같은 시간상황보어는 계시적 시간을 나타내는 대신 앞뒤가 잘린 상태의 그 순간을 뜻한다. 위치를 나타내는 상황보어는 보이지 않는 남편을 중심으로 좌와 우를 표시하고 있다. 지시형용사도 일관적이지 아니라 상대적이다. 이 점도 이 소설이 남편의 시각에 의해 쓰여졌다는 “전적인 주관성”(subjectivité totale)을¹⁹⁾ 의미한다.
4. 시간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전이가 특별한 표시없이 급격이 이루어진다. 비슷한 문장의 반복으로 착각을 일으키게 하면서 다른 상황으로 가버리게 한다. 이것 또한 누보로망의 특징이다. 누보로망은 “겪은 경험”을 이야기한 것이므로, 우리의 기억이 그러하듯, 시계적 시간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의 실현화이다.²⁰⁾

사건 내용(*histoire*) 보다는 이야기 형태(*récit*)를 중시한 점, *mise en abyme* 법, 독자의 적극적 참여, 계시적 시간 무시, 질투로 인해 변형되고, 연상되는, 남편의 시각에 따른 사물묘사 및 인물묘사, 상황보어들의 상대적 가치 등으로 누보로망이 주창하는 새로운 기도가 이 작품에 잘 적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9) “Le Nouveau roman ne vise qu’à une subjectivité totale”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in Pour un Nouveau Roman, p.149.

20) cf. *ibid* : p.150.

참 고 문 헌

Alain Robbe-Grillet, La Jalousie, Ed. de Minuit, paris, 1985.

〃 〃 , Pour un Nouveau Roman, coll. idées, Gallimard, paris, 1968. (63년도)

Entretien avec Alain Robbe-Grillet, in Revue des Sciences Humaines No.205 jan-mar 1987. pp97-109

Olga Bernal, Alain Robbe-Grillet, le Roman de l'Absence, Gallimard, paris, 1974.

Bruce Morrissette, Les Romans de Robbe-Grillet, Ed. de Minuit, paris, 1978.

Gerard Genette, Figures III, coll. poetique, Ed. du Seuil, paris, 1972.

Jean Ricardou, Le Nouveau roman, Écrivains de toujours, séuil, paris, 1984.

Analyse de “La Jalousie” —Thèmes et variations—

Chung Kyung Wee

“La Jalousie” dont les personnages et les événements sont ambigus, ne permet pas d’élaborer une chronologie du récit. Pourtant on arrive à voir le temps évoluer, et l’histoire se développer, par la narration d’un personnage invisible et non identifié, qui épie, d’un regard jaloux, obstiné, la relation A... et de Franck, dont il pourrait être le mari ou l’amant de A....

Sous l’apparence d’une série de descriptions des choses, “La Jalousie” comporte différentes unités : les neuf divisions que l’auteur mentionne à la table des matières, je les ai numérotées selon le 1er chapitre, le 2e, le 3e, etc. et groupées en trois parties : du 1er au 5e pour la 1ère partie, du 6e au 7e pour la 2e, du 8e au 9e pour la 3e partie. Une répétition du mot “maintenant” au début du 1er du 5e, du 6e et du 9e justifie cette division : car, la répétition de la même phrase de la fin du 7e et du début du 8e chapitre, fait une suite sans interruption, comme deux mouvements à vitesse différente, joués en une musique ininterrompue.

Ainsi se définit le contenu de chaque partie: la 1ère partie, une relation très amicale entre A... et Franck avant leur voyage au port; la 2e partie, une relation de plus en plus douteuse entre A... et Frank pendant leur voyage, imagination due à l’absence de A... par le narrateur; la 3e partie, une relation de bon voisinage entre A... et Franck après le voyage ou le retour au point du début du récit. Autrement dit, s’achève une chronologie imaginaire : tout à commencer par une scène d’apéritif : la maîtresse de maison, A... offre un apéritif à son voisin Franck, puis des enchevêtrement et des développements, donc les variations, avec les éléments quotidiens de la vie coloniale de ces deux personnages, enfin la jalousie éveillée, le partenaire de A... revoit des choses comme elles sont : ce n’est qu’à travers la gentillesse de l’hôtesse que A... exprime son amabilité à Franck.

Chaque chapitre se divise par une section d’introduction et la principale, ensuite, chaque section, par des thèmes et leurs variations faites d’additions, de soustractions. ou de quelques changements créant une sorte de sous-unité dans laquelle différentes situations apparaissent : apéritif-déjeuner-dîner, etc. Il y a aussi comme en musique, dans chaque partie, un rythme différent. On sent une petite évolution, modération dans la 1ère partie, une vive accélération dans la 2e ou différentes sortes de bruits, celui du peigne dans la longue chevelure, le grésillement d’un mille-pattes, le ronronnement d’un moteur, le souffle dans le crépitement de la flamme, font un orchestre pour montrer l’apothéose résultant de la vive jalousie. Enfin l’apaisement de la 3e partie ramène l’oeuvre au tempo et montre que tout le récit est imaginaire et qu’on s’est bien amusé ainsi s’analyse l’infrastructure d’un “Nouveau Roman” qui demande une participation active de la part du lecteur.